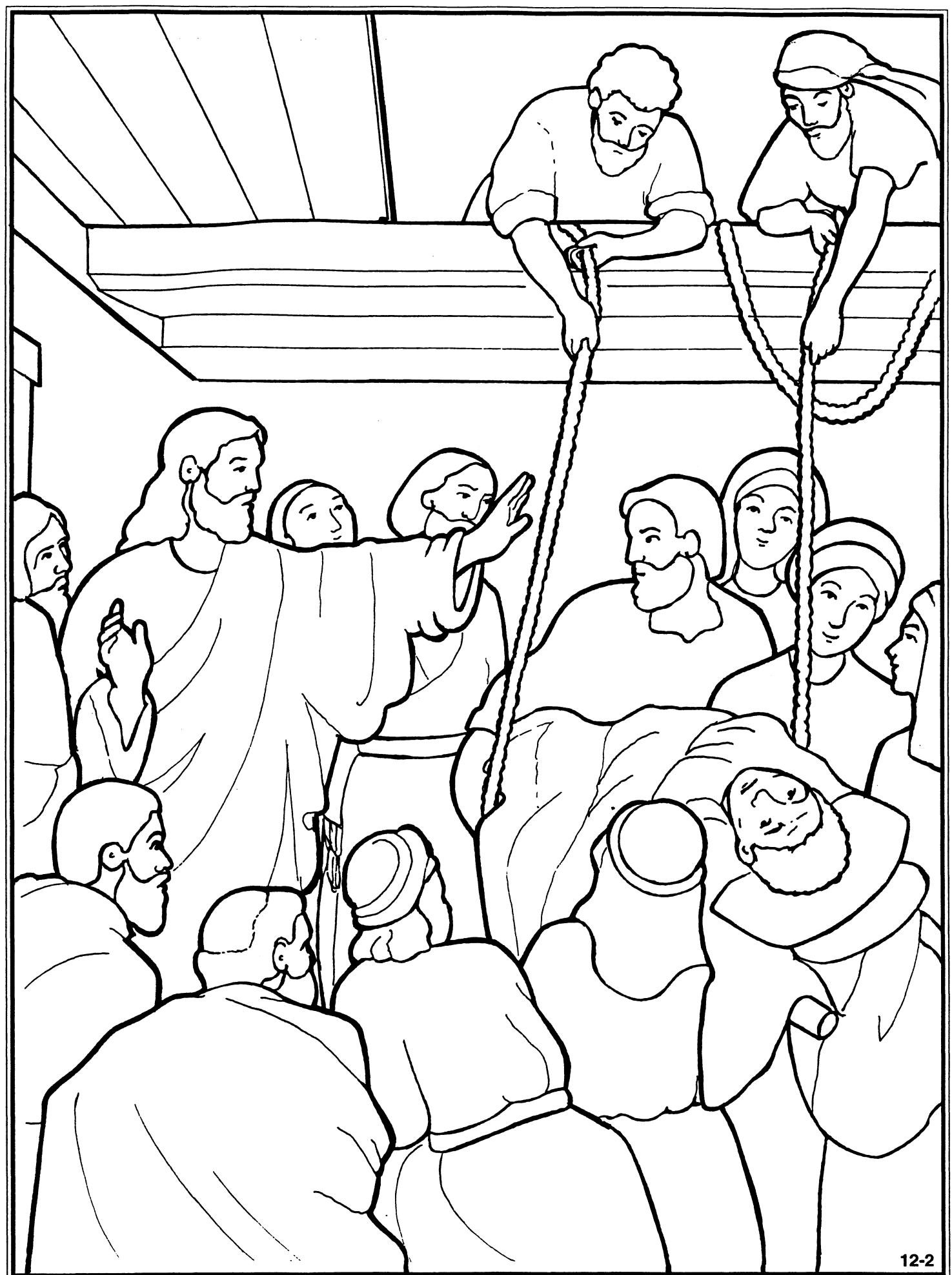


무료입니다 - 하나씩 가져가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읽고 색칠하세요.





예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심

누가 복음 5:17-26

하루는 예수께서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든지 아무도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침대에 누운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계신 집에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평평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의 얼마를 뜯어내서 예수 앞으로 병든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사람을 보시고,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병든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을 단번에 완전하게 고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이며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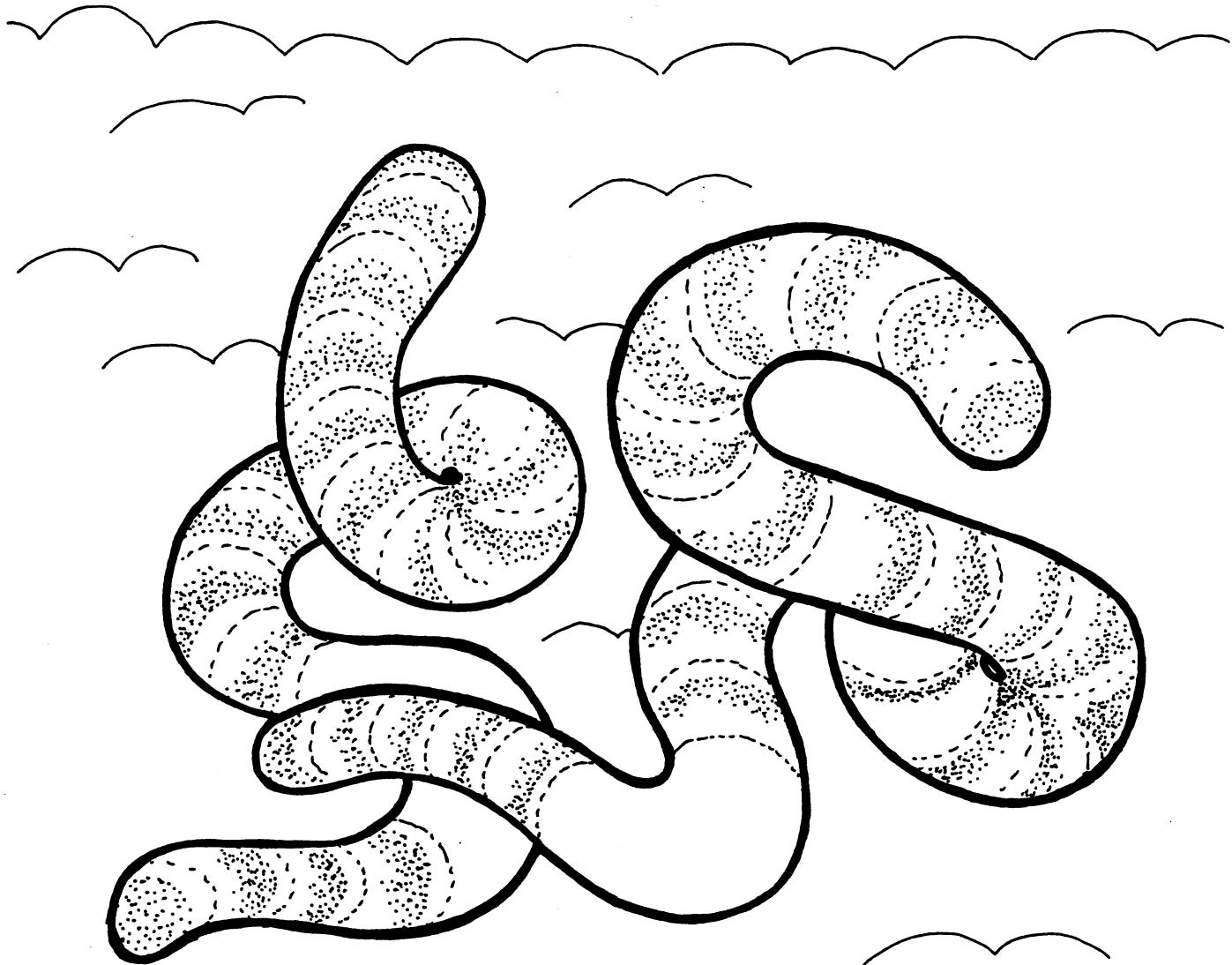
예수님, 우리가 아플 때 당신께 고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당신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귀절 (외우세요)

마태 복음 9:12, 13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의사)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 내가 의인을(경건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죄 용서함을 구하게 하려고) 왔노라”

지렁이



지렁이는 아주 이로운 벌레입니다. 죽은 것들을 먹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지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병이 든다거나 죽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렁이가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벌레들은 실제로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해치기도 하고 또 죽기까지 쉬지 않고 먹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 5:20-25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